



일부 대학생의 AIDS에 대한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예방의도 및 지식

손 정 태¹⁾ · 서 순 림²⁾ · 조 은 정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AIDS 감염인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4000만 명에 이르며, 매일 1만 5000명이 새로 감염되고 800명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서 그동안 WHO 등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확산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 상반기 동안 AIDS 감염자가 하루에 1.46명 꼴로 급증하여 총 2,405명이 등록되었고(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3), 자각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아 모르고 있는 감염인을 합한다면 실제 감염인 수는 정부에 보고된 수의 4-5배 정도로 추정되고,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들과 콕테일요법의 개발에 따른 치료는 AIDS를 만성질환으로 만들었음으로, 이제는 에이즈를 퇴치나 예방차원의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감염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일이 청년세대에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확인된 AIDS의 감염경로는 98.4%가 성적 접촉으로, AIDS의 주요 전파경로가 성관계라는 사실은 감염인을 죄인 취급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됨으로써, 감염인은 감염사실을 통보받는 순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경우가 많아 감염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다(Lee, 2002). 뿐만 아니라 사회의 냉대와 부정적 태도는 감염인으로 하여금 노출을 기피하게 만들고 음지로 숨

게하여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질병전파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감염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Ragsdale & Morrow, 1990), 결국 AIDS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에이즈 예방과 퇴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AIDS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인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비감염인들이 그들을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지지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하는 것이 급선무임이 강조되고 있다(An, 2003).

현재까지의 AIDS와 관련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IDS 환자와 돌봄의 관계를 갖게 될 간호사(Kelly 등, 1988; Jun 등, 1988)나 양호교사(Kang과 Oh, 1996) 그리고 간호학생(Lee, 2001)을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AIDS 환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일반인이나 청소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AIDS 예방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질병에 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고, AIDS에 대해 단편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의 태도를 파악한 연구들이(Yoon, 1997; Duncan & Bergen, 1997; Shin과 Hong, 1996)있을 뿐이어서 편견이나 상호작용의 거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AIDS 감염인은 2, 30대가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년층이야말로 AIDS에 가장 노출위험이 높은 연령층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주 대상인 동시에 감염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할 당사자들로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을

주요어 : AIDS,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예방의도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tson@mail.cu.ac.kr)

2)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대구가톨릭대학교 시간강사

투고일: 2003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03년 12월 24일

위한 교육 또한 가장 요청되는 세대이므로, 이들에 대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AIDS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된 인구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태도, 특히 편견과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 및 AIDS 예방의도에 대해 파악하고, 에이즈 지식 정도와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 AIDS에 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 AIDS 교육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AIDS에 대한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
- 대학생의 AIDS 감염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대학생의 AIDS 예방의도는 어느 정도인가?
-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 대학생의 AIDS에 관한 지식 수준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

용어의 정의

- 편견 : 어느 사회나 집단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간직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는 AIDS 감염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Kelly 등, 1988)으로 Kelly 등(1988)이 개발하고, Jun(1988)이 수정한 편견평가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다.
- 사회적 상호작용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주어진 상황에서 인과적 현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Kelly 등, 1988)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AIDS 감염인과 함께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Kelly 등(1988)이 개발하고, Jun(1996)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 지식 : 개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Lee, 1989)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AIDS 지식을 묻는 40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IDS와 AIDS 감염인

에 대한 편견, 상호작용가능성 및 AIDS 예방의도의 태도를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연구대상은 D시의 일개 종합대학교에서 전 학년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교양과목 강좌 중에서 담당교수로부터 설문조사 시간을 허락받은 4개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160명으로 편의 표집되었다. 강의 시작 전 시간을 빌어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47부의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기입이 미비한 자료 2부를 제외한 145부를 자료로 채택하였다.

연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IDS 교육 및 정보접촉 경험을 묻는 10개의 문항을 두었으며, 태도는 편견과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 및 예방의도를 물었고, 그 외 AIDS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편견 척도

AIDS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기술한 것으로 Kelly 등(1988)이 7점 척도의 12개 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Jun(1996)이 번역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모르겠다 3점, 그렇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정도가 심한 것이다. 이 도구는 Jun(1996)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68$ 이었고, Kang과 Oh(1996)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7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76$ 이었다.

• 사회적 상호작용 척도

AIDS 감염인과 함께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상호작용의 태도를 취할지를 묻는 것으로 Kelly 등(1988)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Jun(1996)이 번역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을,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감염인에 대한 태도를 답할 수 있도록 문항내용을 수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정말 그렇다 5점을 주어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이 도구는 Jun(1996)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87$ 이었고, Kang과 Oh(1996)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alpha=.93$ 이었다.

● 예방의도 척도

AIDS 전파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예방을 위한 각 행위들을 취할 것 인지의 태도를 묻는 것으로, 5점 척도의 6문항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수정하였다.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의도가 높은 것이다. 도구의 Chronbach's $\alpha=.78$ 이었다.

● 지식 측정도구

Yoon(1997), Jin(1998) 및 Son(1999)이 사용한 AIDS 지식 측정도구들을 근거로 중복되는 문항들을 제외하여, AIDS의 일반적 정의와 원인 4문항, 증상 12문항, 진단과 치료 6문항, 전파방법 12문항 및 예방 6문항의 총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맞다, 틀리다, 또는 모르겠다로 답하게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80$ 이었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1.5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예방의도의 평균점수와 편차를 구하였고,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각 문항별 백분율과 평균도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또는 ANOVA로 검정하였고, AIDS에 대한 지식정도의 평균값을 구했으며, 지식 수준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지식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지식수준을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지식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21.4%, 여학생이 78.6%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나이는 20세 이하가 39.3%, 21세에서 23세가 40.7%, 24세 이상은 29%였다. 종교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40%였다. AIDS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1%에 불과하였고, 전에 AIDS 관련 정보와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은 62.1%였다.

AIDS에 대한 편견

<Table 1>은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편견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 중 평균 23.54로 대학생의 편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분포를 보면, 'AIDS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책임져야한다'에 대해 평균 3.83으로 가장 편견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AIDS 감염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다'로 평균 3.39 이었다. '당연히 치료를 받을 가치가 있다'가 1.07로 편견정도가 가장 낮았고, 'AIDS 환자는 자살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1.72로 편견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AIDS 환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Table 2>에서 AIDS 감염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최저7점에서 최고35점 중에서 평균 20.92로 평균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중간적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친구가 AIDS 환자라도 변함없이 우정을 지속하겠다'는 평균 3.66으로

<Table 1> Prejudice toward AIDS

(N=14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N	(%)	
overall											23.54 (3.92)
1. Responsible for his illness	2	(1.4)	20	(13.8)	13	(9.0)	75	(51.7)	35	(24.1)	3.83 (.99)
*2. Deserves sympathy & understanding	18	(12.4)	93	(64.1)	20	(13.8)	11	(7.6)	3	(2.1)	2.23 (.84)
3. Deserves what happened to him	26	(17.9)	7	(53.1)	33	(22.8)	7	(4.8)	2	(1.4)	2.19 (.83)
*4. Illness traumatic for him	0	(0.0)	2	(1.4)	6	(4.1)	72	(49.7)	65	(44.8)	1.62 (.64)
*5. Lot of pain & suffering	0	(0.0)	2	(1.4)	22	(15.2)	66	(46.2)	54	(37.2)	1.81 (.74)
*6. Deserves medical care	0	(0.0)	0	(0.0)	11	(7.6)	80	(55.2)	54	(37.2)	1.70 (.60)
7. Dangerous to others	3	(2.1)	30	(20.7)	34	(23.4)	63	(43.4)	15	(10.3)	3.39 (1.00)
8. Deserves to die	26	(17.9)	92	(63.4)	26	(17.9)	1	(0.7)	0	(0.0)	2.01 (.62)
9. World would be better off without him	14	(9.7)	27	(18.6)	5 8	(40.0)	33	(22.8)	13	(9.0)	3.03 (1.08)
10. Suicide is best solution	63	(43.4)	65	(44.8)	13	(9.0)	2	(1.4)	2	(1.4)	1.72 (.79)
11. Should be quarantined	17	(11.7)	39	(26.9)	47	(32.4)	34	(23.4)	8	(4.5)	2.84 (.96)
12. Deserves to remove from school	16	(11.0)	61	(42.1)	46	(31.7)	17	(11.7)	5	(3.4)	2.54 (.96)

* 역문항임

<Table 2>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N=14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N	(%)	
overall											20.92 (5.13)
1. Willing to engage in conversation	11	(7.6)	21	(14.5)	75	(51.7)	31	(21.4)	7	(4.8)	3.01 (.93)
2. Attend a club meeting where present	12	(8.3)	33	(22.8)	73	(50.3)	24	(16.6)	3	(2.1)	2.81 (.88)
3. Attend party where preparing food	11	(7.6)	31	(21.4)	75	(51.7)	26	(17.9)	2	(1.4)	2.84 (.86)
4. Willing to work in same class	9	(6.2)	19	(13.1)	66	(45.5)	47	(32.4)	4	(2.8)	3.12 (.90)
5. Willing to continue friendship	4	(2.8)	4	(2.8)	49	(33.8)	69	(47.6)	19	(13.1)	3.66 (.84)
6. Willing to renew lease	10	(6.9)	34	(23.4)	75	(51.7)	2	(1.6)	2	(1.4)	2.82 (.84)
7. Allow sister(brother) to visit	14	(9.7)	49	(33.8)	57	(39.3)	24	(16.6)	1	(0.7)	2.65 (.89)

문항 중 가장 높은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겠다'가 평균 3.12로 잘 모르겠다는 태도가 45.5%로 가장 많은 항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낸 항은 '형제가 놀러가게 하겠다'로 2.65였고, 다음은 'AIDS 감염인이 있는 동아리에 참석하겠다'는 2.81, '전세를 주겠다' 2.82의 순으로 낮았다.

<Table 3>에서 대학생의 예방의도는 최저 6점에서 최대 30점 중 평균 24.74로 대학생들은 강한 예방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별로는 '마약사용은 하지 않겠다'에 대해서는 4.56으로 가장 높은 예방의도를 보였고, 다음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에 대해서는 4.50으로 높았다. 'AIDS 검진을 위해 혈액검사를 받겠다'는 3.61로 문항 중 예방의도가 가장 낮았다. 성관계 시에 콘돔을 쓰거나 상대방이 쓰게 하겠다에 대해서는 3.99로 나타났다.

에이즈 예방의도

<Table 3> Intention for AIDS prevention

(N=145)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N	(%)	
overall											24.74 (2.71)
1. Willing to take blood test for AIDS screening	4	(2.8)	16	(11.0)	26	(17.9)	85	(58.6)	14	(9.7)	3.61 (.91)
2. Willing to wear or make him wear condom when sex	1	(0.7)	2	(1.4)	24	(16.6)	88	(60.7)	30	(20.7)	3.99 (.70)
3. Willing to reject sex	1	(0.7)	1	(0.7)	9	(6.2)	47	(32.4)	87	(60.0)	4.50 (.71)
5. Willing to reject sex with drug user	1	(0.7)	4	(2.8)	12	(8.3)	66	(45.5)	62	(42.8)	4.27 (.78)
6. Willing to tell others method for prevention	0	(0.0)	4	(2.8)	40	(27.0)	81	(55.9)	20	(13.8)	3.81 (.70)
8. Willing to reject drugs	2	(1.4)	3	(2.1)	2	(1.4)	43	(29.7)	95	(65.5)	4.56 (.75)

<Table 4> Prejudice, social interaction, prevention intention, and knowledge toward AID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Prejudice		Social interaction		Prevention intention	
		Mean (SD)	t / F p	Mean (SD)	t / F p	Mean (SD)	t / F p
Sex	Men	23.87 (4.26)	.532	22.87 (4.70)	2.431	23.94 (2.94)	1.894
	Women	23.45 (3.83)	.595	20.39 (5.13)	.016*	24.96 (2.61)	.060
Age	below20	23.49 (4.34)		21.02 (4.60)		25.30 (2.45)	
	21	23.66 (2.59)	.461	21.00 (5.69)	.019	24.41 (3.50)	2.844
	22	23.64 (4.25)	.632	19.82 (5.96)	.981	24.36 (2.46)	.087
	23	22.54 (4.38)		21.16 (5.63)		25.16 (1.98)	
	above24	24.14 (3.83)		20.90 (5.13)		23.86 (2.66)	
Experience of AIDS education	yes	23.54 (3.62)	.009	21.23 (5.29)	.411	24.71 (2.48)	.076
	no	23.54 (4.02)	.993	20.82 (5.10)	.682	24.75 (2.79)	.939
Contact with AIDS information	yes	23.80 (3.93)	1.031	21.28 (5.26)	1.083	24.27 (2.84)	.002
	no	23.11 (3.90)	.304	20.33 (4.91)	.281	24.75 (2.50)	.998
Total		23.54 (3.92)		20.92 (5.13)		24.74 (2.71)	

* p <.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예방의도

<Table 4>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남학생은 22.87로 여학생의 20.39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16), 편견이나 예방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나 AIDS 교육을 받은 경험, AIDS 관련 정보와의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없었다.

AIDS에 관한 지식

<Table 5>는 대상자들의 AIDS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본 것으로 대학생들은 40점 만점에서 평균 21.63점을 나타내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54점 정도로 나타났다. 범주별로 분류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감염경로에 대해 12점 만점에 8.40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고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4.31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Table 5> Score of knowledge about AIDS

	Mean	(SD)	Range
Knowledge	21.63	(5.43)	7 - 34

AIDS 지식 수준에 따른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예방의도

<Table 6>을 보면 AIDS에 관한 지식 수준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지식 수준을 중앙값 22점을 중심으로 상과 하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본 결과, 지식 수준이 높은 대학생 군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는 27.70으로 지식 수준이 낮은 군의 20.0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44). 편견은 지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예방의도는 지식 수준이 높은 군이 평균 25.18로 지식 수준이 낮은 군의 24.3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0).

논 의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편견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이 AIDS 감염인에 대해 나타내는 편견 정도는 만점 60점 중 평균 24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편견도구로 측정된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Jun 등(1988)의 연구에서 2,30대의 간호사들은 평균 35점 정도의 보통 이상의 편견정도를 나타내었고, Kang과 Oh(1996)의 연구에서 3,40대의 양호교사들의 편견정도는 평균 33점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편견 정도는 간호사나 양호교사들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 즉 성인이나 AIDS 관련 지식이 많은 전문직 집단에 비해 대학생들이 편견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전문직 집단인 간호사들이 접촉을 통한 감염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어(Jun, 등, 1988), 간호학생들에 대한 AIDS 교육에서 참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문항별로도 보았을 때,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편견정도가 높은 문항은 'AIDS 환자 자신이 책임을 느껴야한다' 였는데,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은 평균 3.83으로, 간호사 집단이 4.42(Jun 등, 1988)를 나타내고 양호교사 집단이 4.46(Kang과 Oh, 1996) 이었던 것에 비해 편견정도가 낮았다. 또한 간호사들(Jun 등,1988)이 AIDS 환자를 위협적인 존재, 격리시켜야 할 존재로 평균4.0점 이상의 강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반해, 대학생들은 평균 2.84와 2.54로 낮은 편으로 직접 환자로서 대하는 간호사와 친구 입장인 대학생간에 편견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 수준에 따른 편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1992)의 연구에서 AIDS 교육 후 청소년들의 지식 정도가 향상되었음에도 편견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던 결과와, Kang과 Oh(1996)의 연구에서 양호교사의 지식정도와 편견정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 그리고 Jun 등(1988)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편견이 AIDS 교육 전 과 후에 차이가 없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Kang 등(1996)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이 AIDS 증상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에이즈환자에 대한 태도는 폐쇄적이었으며, Ashworth 등(1992)은 AIDS 교육 후에 감염우려에 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달랐다.

<Table 6> Prejudice, social interaction, and prevention intention toward AIDS according to the level of knowledge

	Level of knowledge		t	p
	Upper (N=73) Mean (SD)	Lower(N=72) Mean (SD)		
Prejudice	23.00 (4.01)	24.08 (3.77)	1.675	.096
Social interaction	27.70 (5.69)	20.06 (4.37)	2.030	.044*
Prevention intention	25.18 (2.41)	24.31 (2.93)	1.959	.050*

* p <.05

결과적으로 AIDS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이 감염인에 대한 편견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편견을 낮게 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Yoon(1997), An 등(1997), Robbins 등(1992), 그리고 Price 등(1985) 등은, 현재 학생들이 얻는 정보의 주된 출처인 TV, 신문과 같은 언론이나 AIDS 관련 교육은 주로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폐해를 강조하고 있고, 제한시간 내에 단편적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어, AIDS에 대해 알게되면서 오히려 AIDS를 왜곡되고 과장된 시선으로 보게 되고,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여 격리하려는 태도를 갖게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IDS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고 편견도 낮은 상태인 대학생들에게는 종전에 행해왔던, 두려움이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AIDS의 폐해만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나 홍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AIDS 감염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 정도는 최고 35점 중 평균 20.92로 잘 모르겠다는 중간적 입장에 가까웠다. 이는 같은 도구로 측정한 Jun 등(1988)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상호작용 가능성 점수가 17점으로 나타났던 것보다 높은 점수이고, Kang과 Oh(1996)의 연구에서 양호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가 19점이었던 것보다 높은 것으로, 대학생들은 오히려 전문직 집단인 간호사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세 연구에서 모두 대부분 문항에 대해 평균 3.5이하의 낮은 상호작용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AIDS 감염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거부나 차별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정을 유지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세 연구에서 평균 3.3에서 3.6 정도의 유사한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면서도, '형제가 AIDS 환자의 집에 놀러가도록 허락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대학생들은 평균 2.65로 나타나 간호사들의 평균 1.45(Jun 등, 1988)와 양호교사의 평균 1.81보다(Kang과 Oh, 1996) 높긴 하지만, 각각의 연구에서 가장 낮은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낸 문항이었다. 이러한 두 문항간의 상호작용 태도의 현저한 차이가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연구대상자로 여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가족들의 안전을 중시하는 여성적인 보호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Kang과 Oh, 1996), 그 이면에는 대학생이거나 간호사이거나 모두 감염에 대한 두려움(Son, 1999; Schenker와 Greenblatt, 1993)이 내재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는 AIDS에 관한 지식점수가

높은 군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Jun 등(1996)의 연구에서 간호사에 대한 AIDS 교육 후에 상호작용 가능성이 향상된 것, 그리고 Hwang(199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태도 중 상호작용 문항들만은 교육 후에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나, 교육에 의해 AIDS지식을 증가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Ross, 등(1991)과 Newman(1993)의 연구결과들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이다. 이는 AIDS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의 전달로 AIDS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에 대한 과다한 거부감이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AIDS 예방의도

예방의도는 최대 30점 중 평균 25점 정도로 높은 예방의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약사용'이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에 대해 평균 4.5 이상을 나타낸 것은 연구대상이 여학생들이 많고 그러한 상황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Chang과 Lee(1997)의 연구에서도 가장 예방의도가 높은 문항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콘돔을 사용하겠다'는 3.9로 예방의도 높다고 볼 수 없는데, Chang과 Lee(1997)의 연구에서도 건강관리자들은 14.8%만이 사용하겠다는 예방의도를 나타내어, 콘돔의 사용을 남성들만의 문제로 인식한 때문이란 견해를 밝힌 바처럼 현재의 청년층이든 일반인들이건 콘돔의 필수적 사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감염자 2,258명의 감염자 가운데 97.5%인 1,794명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감염요인 중 한 가지는 청년들의 동성간 이성간 성접촉의 증가와 콘돔사용의 부진으로 밝혀졌다(Kim, 2003). 또한 최근 미국질병통계센터(CDC)에서 주도했던 백신개발이 실패함에 따라 당분간 '개인의 예방노력'만이 AIDS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콘돔사용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Park, 2002), 사용의도에 있어 100%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으로서, 앞으로 AIDS 교육에서는 남학생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여학생의 교육에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AIDS 지식 수준이 높은 군이 예방의도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은 예방을 위해서는 AIDS 교육을 통한 지식보급의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지식 점수는 40점 만점에서 평균 21.57로, 이는 대구경북지역 일부 대학생들(Shin과 Hong, 1996a)의 지식점수가 18점 만점에서 평균 6.9점이었던 것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부산 및 울산 지역 대학생들의 에이즈 지식정도(Shin과 Hong, 1996b)가 22점 만점에서 평균 12.9점이었던 것과는 유사하였다. 각 연구

들 간의 문항수의 차이가 있긴 하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대학생들은 대체로 40 내지 50% 수준의 지식을 나타내고 있어, 약 7년여의 시간적 경과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지식 수준에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AIDS 역사가 20여 년이 지났고, AIDS 감염인의 수가 최근 급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여 학교 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에 대한 에이즈 관련 교육이나 홍보는 확대 보급되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현재 국내 AIDS 감염인의 감염경로가 대부분이 성적 접촉이고, 주 연령층이 2,30대임을 감안할 때, 성적욕구가 가장 활발한 청년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에이즈감염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통한 교육과 홍보, 계몽임을 (Jones, 1987; Kwon, Lee와 Kim, 1999) 알고 AIDS교육을 확대시켜야 하며, 특히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여 편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하고, 감염인들을 질병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알게 하고, 포용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편견, 사회적 상호작용, AIDS 예방의도 및 지식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서술적 연구로, AIDS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편견은 평균 23.54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에 해당되므로 편견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에이즈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책임져야한다'에 대해 평균 3.83으로 가장 편견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환자 자신에게도 신체적 손상을 준다'에 대해 평균 1.62로 편견 정도가 가장 낮았다.
- AIDS감염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평균 20.92로 잘 모르겠다는 중간적 태도를 나타냈다. 문항 중 '친구가 에이즈 환자라도 변함없이 우정을 지속하겠다'에는 평균 3.66으로 가장 높은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냈다. '형제가 놀러가게 하겠다'에 대해서는 평균 2.65로 상호작용 정도가 가장 낮았다.
- 예방의도는 최대 30점 중 평균 24.74로 그렇다는 강한 동의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문항별로는 '마약사용은 하지 않겠다' 4.56으로 높은 예방의도를 나타냈고, '콘돔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3.99였다.

- 남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는 평균 22.87로 여학생의 20.39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6$).
- 대상자들의 AIDS 지식점수는 만점 40점에서 평균 21.63이었다.
- 지식 수준이 높은 대학생 군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는 평균 27.70으로 지식 수준이 낮은 군의 20.06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4$) 예방의도는 지식 수준이 높은 군이 평균 25.18로 지식수준이 낮은 군의 24.3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0$). 편견은 지식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편견정도는 낮은 편으로 AIDS 감염인에 대한 거부감은 높지 않았으나,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은 보통 정도를 보이면서, 예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재의 대학생들을 위한 AIDS 교육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편견을 조장하거나 거부감이나 감염의 두려움을 유발시키지 않게 함이 중요하고, AIDS 감염인들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예방의도가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IDS 교육에서 콘돔사용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3). Incidence of AIDS in Korea, *Red Ribbon*, 11/12, 34-35.
- An, E. S., et al. (1997). The effect of AIDS health education on woman baccalaureate students in Seoul, *J. of Jungang Medicine*, 62(1), 97-105.
- An, J. J. (2003). Mascom. produced prejudice toward AIDS, *Red Ribbon*, 03/04, 10-11.
- Armstrong-Esther C., Hewitt, W. E. (1989). Knowledge and perception of AIDS among Canadian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4, 923-938.
- Ashworth, C. S., Durant, R. H., Gaillard, G., Newman C. (1992). An evaluation of a school based AIDS/HIV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J. of Adolescent Health*, 13(7), 582-588.
- Chang, S. B., Lee, C. W. (1997). Effect of the education on the AIDS for Korean health care workers, *J Korean Acad Nurs*, 27(1), 201-211.
- Duncan, D., & Bergen, B. (1997). Knowledge of Newzealand youth regarding sexuality and AIDS, *J of Sex and Marital Therapy*, 23(1), 47-51.
- Hong, D. S. (1986). Introduction of Psychosociology, Parkyoungsa, p.388.
- Hwang, I. S. (1992). *The effect of AIDS health education on Adolescent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in, K. N. (1998).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Effect of education for prevention of AIDS*, 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Seoul.
- Jones, L H. (1987). AIDS education and the community health nurse, *J Communi Health Nurs*, 5(3), 159-165.
- Jun, C. Y., et al. (1988). A survey on nurses attitudes and knowledge of AIDS. *J of Kor Nurs Assoc*, 27(4), 75-87.
- Kang, E. Y. et al. (1996). A survey of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 AIDS, *J of Ewha Acad of Nursing*, 29, 24-46.
- Kang, Y. S., Oh, H. S. (1996). Changes of nurse teacher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by education, *The J of Kor Community Nursing*, 7(2), 349-360.
- Kelly, J. A., et al. (1988). Nurses' attitude toward AIDS, *J of Cont Educ in Nurs*, 19(2), 78-83.
- Kwon, K. W., Lee, K. M., Kim, J. S. (1999).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AIDS prevention education. *J.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2(1), 109-129.
- Lee, C. W. (2002). More fearful than AIDS, *Red Ribbon*, 07/08, 8.
- Lee, H. S. (1989). Korean Dictionary, 3rd ed., Minjungugwan, 2001.
- Lee, J. K. (2001). A study for investigating predictors of AIDS and patients care int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1(2), 292-303
- Newman, C., Durant, C. S., Gillard, G. (1993) An evaluation of school based AIDS/HIV education program for young adolescents, *AIDS Education & Prevention*, 5(4), 327-339.
- Oh, J. A. (1999). The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 Community Health Nurs Acad Society*, 13(1), 63-76.
- Park, S. H. (2002). The best choice of AIDS prevention, *Red Ribbon*, 03/04, 8-9.
- Price, J. H., Desmond, S., Kukula, G. (1985).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s of AIDS, *J. School Health*, 60, 276-279.
- Ragsdale, D., & Morrow, J. R. (1990). Qulaity of life as a function of HIV classification, *Nursing Research*, 39(6), 355-359.
- Robbins, J., Cooper, A., & Bender, M. P.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ttitudes, and degree of contact with AIDS and HIV,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198-203.
- Ross, M. W., Craudle, C., Taylor, J. (1991). Relationship of AIDS education and knowledge to AIDS related social skills in adolescent, *J of School Health*, 61(8), 351-354.
- Schenker, I., Greenblatt, C. L. (1993). Israeli youth and AIDS: knowledge and attitude ahangs among high school students following an AIDS education program, *Isr J Med Sci*, 29(Suppl), 41-47.
- Shin, Y. H., Hong, Y. H. (1996a).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Daegu and KyungPook, *J of Kor Nurs Assoc*, 35(1), 94-102.
- Son, J. T. (1999). Nurse's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AIDS and patients with AIDS, *J of Korean Fund Nursing*, 6(3), 544-558.
- Yoon, H. S. (1997). *The effect of an AIDS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in high schoolgirl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A Descriptive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Prejudice toward AIDS,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Intention for AIDS Prevention, and Knowledge

Son, Jung-Tae¹⁾ · Suh, Soon-Rim²⁾ · Cho, Eun-Jung³⁾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 Part time lecturer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ir prejudice toward AIDS,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and intention to practice AIDS preventive measures. **Method:**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design.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45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with SPSS 11.5. **Result:** The mean score for prejudice toward AIDS was 23.54, implying a low level of prejudice toward AIDS by the subjects. The mean score for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was 20.92, indicating a moderate level of intention for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The mean score for intention to practice AIDS prevention was 24.74, assuming a strong intention to practice AIDS prevention. Those who had higher mean scores for AIDS Knowledg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ean scores for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and intention to practice prevention than those who had lower scores. **Conclusion:**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university students had a low level of prejudice toward AIDS, a moderate level of social interaction with AIDS patients and a high level of intention to practice AIDS prevention. Therefore, a specially designed AIDS education program is needed for university students so as not to provoke fear or stigma toward AIDS patients and to support AIDS patients.

Key words : AIDS, Prejudice, Social interaction, Intention for prevention, Knowledg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 Jung-Ta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034, Korea
Tel: +82-53-650-4828 Fax: +82-53-621-4106 E-mail: jtson@mail.cu.ac.kr*